

## 안개의 정체는 무엇인가

안개 때문에 공항에서 뜨고내리는 비행기가 연발착을 하는가하면 한강변의 도로가 잘 안보여 자동차 주행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안개는 요즘과 같은 늦가을에 기성한다.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은 정말 깜깜한 밤보다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빛이 안개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개가 짙게 깔린 날엔 항공기는 물론 선박도 꼼짝 못하고 쉬게 된다.

안개의 정체는 무엇일까. 안개는 하늘 높이 떠도는 구름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다. 차이가 있다면 구름은 하늘에 떠도는 것이고 안개는 땅 가까이를 맴도는 것이라 할까. 그 정도이다.

안개가 생기려면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작은 물방울들을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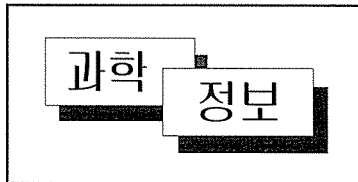
야만 한다. 이렇게 되려면 공기가 어떤 이유론든 차게 냉각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뜻한 공기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찬 공기는 수증기를 많이 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찬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찬 공기의 양은 찬 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어떤 온도보다 낮게 떨어지면 그 공기는 수분을 전부 수증기 형태로 품지 못하고 일부가 작은 물방울을 만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안개가 된다. 이와 같이 안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경계온도를 노점이라 한다.

따라서 안개가 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서로 어울려 섞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안개는 주로 밤과 새벽녘에 땅과 호수, 연못 같은 곳에서 잘 생겨난다.

이들 안개는 위쪽의 찬 공기가 밑으로 흘러들어와 지면과 수면의 따뜻한 공기가 섞일 때 만들어진다. 낮동안 땅과 물은 햇빛을 받아 비교적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는 데 반해 해가 떨어지면 위쪽의 공기는 아래쪽보다 빨리 식어버린다. 그래서 아래쪽의 따뜻한 공기를 밀어내며 이들이 섞이게 된다. 이같은 안개는 바람이 없고 잔잔한 날일수록 짙은 현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전날 비교적 따뜻했거나 고기압현상으로 맑은 날에 주로 나타난다. 이같은 안개는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극성을 띠는 것이 특성이다.

도시에는 공기 가운데 먼지가 많아 이들이 안개를 만드는 씨가 되어 쉽게 안개를 만들 뿐 아니라 물방울 속에 먼지가 많이 들어 있어 짙어지게 되는 것이다. 안개가 짙게 깔 때 날씨가 좋은 것이 때문이다. 세계에서 안개로 유명한 곳은 뉴파운드랜드로 알려져 있다.



## 좋은 내의를 고르려면...

좋은 내의를 고르려면 우선 알아둬야 할 일이 있다. 내의는 짜는 방법에 따라 홑겹으로 짠 양면편직이 있고 세겹으로 짠 삼단양면편직, 네겹으로 짠 사단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겨울용 내의는 대부분 세겹짜리이다. 흔히 시장에서 네겹짜리 사단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겹짜리인 경우가 많다.

여름용은 홑겹이라 해도 실울이 가는 것으로 짜고 겨울용은 실울이 굵은 것을 많이 이용한다. 홑겹은 한가닥으로 짜는 것이어서 실울이 한곳이라도 빠지면 계속해서 풀어져 나오지만 두겹이상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실울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보아 홑겹과 두겹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홑겹은 내의를 늘어

보면 한가닥의 실로 일정하게 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겹과 세겹은 겉으로 보아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내의는 실의 질에 따라 면내의, 합섬내의, 모직내의로 나눌 수 있다. 면내의는 목화솜으로 타낸 실로 짠 것이고, 합섬내의는 캐시미룬, 예술란, 본넬 등 아크릴계통의 합성섬유로 짠 것이며 혼방내의는 면과 합성섬유를 섞은 실로 짠 것이다.

그런데 면내의는 촉감이 부드러울 뿐 아니라 천연섬유이어서 피부알레르기 반응과 정전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습기를 잘 빨아들여 피부의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세탁물이 더디 말라 잔손이 많이 가는 게 흠이다.

합섬내의는 질기고 세탁하기 쉬워 입

기 편리한 반면 흔히 정전기를 발생시켜 피부알레르기를 일으킨다. 그리고 모직내의는 보온성이 좋아 무척 따뜻하지만 피부에 직접 닿으면 깔끄럽고 쉬 떨어지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그래서 내의를 고를 땐 우선 피부와 접촉하는 속내의는 면으로 된 것을 선택하고 그위에 합섬내의나 혼방 또는 모직내의를 입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울의 짜임새는 고르고 조밀하며 재봉틀로 박은 부분이 촘촘하고 터진 곳이 없이 탄탄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짜임새가 엉성하면 세탁할 때마다 줄어들게 된다.

내의를 양손에 들고 실울이 떨어져 나온 부분이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실울이 빠졌거나 떨어져 있으면 그 부위가 풀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홑겹내의는 계속해서 풀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